

### ♥ 아버지

얼마 전, 친구를 만나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윈도우 너머로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 재잘대고 웃으며 지나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뒹뒹뒹 걷는 작은 아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윈도우의 작은 스크린을 통해 영화처럼 지나쳤습니다.

'끼익~!'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인도 쪽으로 대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택시로 다가왔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기사 아저씨가 무엇을 잘못된 모양입니다.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경찰에게 조릅니다. "한번만 봐주게... 불황이라 벌이도 시원찮아..." "안됩니다.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아저씨는 봐달라는 말을 경찰 아저씨 팔을 잡으며 이야기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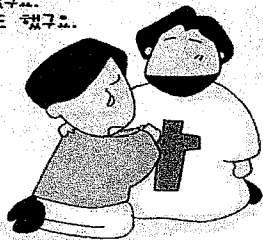
완고한 경찰 아저씨는 안 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기사 아저씨가 경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만 봐주시게. 정말... 벌이가 시원찮아... 봐주시게." 놀란 경찰 아저씨도 무릎을 꿇고 기사 아저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한번만 봐주시게. 다신 안 그럼세. 미안허어." "그렇다고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당신 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 뻔 되는 사람에게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고맙네... 고마워..." 택시는 곧 출발했습니다.

윈도우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꿈쩍했습니다. 팔짱끼고 걷는 연인들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가족들을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가족들을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웃고 재잘대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가족들을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엄마의 손을 잡고 뒹뒹뒹 걷는 아이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그 무릎을 꿇겠죠. 인생의 훈련장에서 고개 숙인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선가 오늘도 무릎을 꿇겠죠. 우리를 위해.....

무릎 꿇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 눈으로는 절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전 아주 나쁜 놈이었어  
거짓말도 했구요.  
나를 미워하기도 했구요.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구요.

...  
또  
...  
그리고  
...



아직 믿었니?  
그래도 널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b>칼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섬김과봉사 *의명성-명예
제 9권 2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5월 27일
☎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 ◀하나님! 나의 하나님▶

## 十 평신도 같은 목사, 목사 같은 평신도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흔히 말하는 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청년들이 연극을 하기위해서 강대상을 한번 옮기려면 교회 재직들과 몇 달씩 씨름을 해야 했고, 기타를 치며 복음 송을 부른 것 또한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허락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이슈로 등장했던 단골손님은 젊은 목사님이 새벽기도회 때 넥타이도 없이 머리 손질을 잘 안 하시고 설교하신다는 것과 주일날 예배 후 청년들과 권투시합을 본다는가 장기를 두었던 일 등이었고, 그 때마다 목사님은 늘 우리 편(?)이셨습니다. 같이 탁구도 치고 짜장면도 먹고 함께 기타를 치며 복음송을 밤새워 부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면 늘 웃음으로 때우시고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평신도와 같은 목사님'을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자마자 어는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소개하는 시간에 그 집사님 왈 "저는 목회자에게 도전이 되는 평신도가 되겠습니다."고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미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그 집사님 내외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부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셔서 승승장구 하시더니 지금 한국 모 대학의 학과 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어려움을 알고 그 사정을 헤아리며 목사를 심방(?)하는 평신도였습니다. 어느날은 '왜 목사님만 우리를 심방 해야 하느냐?'며 한방차를 들고 감사와 위로의 심방차(?)를 들렀다고 너털 웃음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김일성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거기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래 '평신도'라는 말은 3세기 초 목사의 클레멘트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모든 성도는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 '평신도 같은 목사, 목사 같은 평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36장	다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3 (성령강림주일)	다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205장	다같이
기도 Pray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예배소서 5:15-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지혜자의 삶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506장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교회생활』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2. 교우소식  
\* 이사-백문종, 조병희 집사 155A Arran Rd Brownsbay
3. 교제를 마치신후 식기(접시)는 반드시 봉사부에 전달 바랍니다.
4. Tax refund 를 위한 영수증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알림 입니다).
5. 예배 후 2 DRESS ROOM 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6. 수요일 밤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으십시오  
구별이 있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수요예배: 저녁 7:30 Main Hall
7. 중, 고등부 분반 공부가 2시30분까지 입니다.  
분반 공부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8.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좌석은 가급적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339

총액: \$ 315,210.70

### ◆5월 예배위원◆

### ◆6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응답송	안내
29	임혜자		본당: 권사
6	장현중		현관(1) 김교섭 최재학
13	정관영		현관(2) 장현중 정덕수
20	정덕수		새교우: 이광희 이근평
27	정희자		윤주야 장유진

주 일	예배와 모임
3	
10	구역예배
17	여선교회 윌레회
24	남선교회 윌레회.

3 조용건  
10 최득수

### ◀ 착한 시인들 ▶ 그대 있음에

김남조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 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그대 있음에  
그대 있음에 내 맘에 자라거늘  
그리움이어 그리움이어 그리움이어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 잡게 해